

홀로그램과 실재에 관한 연구

- 블라바츠키(H. P. Blavasky)와
현대 신지학의 이론을 중심으로

조 관 용*

- I. 머리말
- II. 사유와 실재와 진동
 - 1. 실재와 진동
 - 2. 사유와 진동수
- III. 홀로그램 원리와 빛과 물질원자
 - 1. 홀로그램 원리
 - 2. 실재와 빛과 물질원자
- IV. 홀로그램의 원리와 실재
 - 1. 간섭무늬와 기록
 - 2. 홀로그램의 원리: 실재의 존재 변형
 - 3. 홀로그램과 예술
- V. 결론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이 논문은 한국미학예술학회 2013년 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게재한 것이며,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B5A07037801].

I. 머리말

홀로그램의 영상이미지는 시각적인 충격을 자아내며,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펼쳐질 유토피아적인 미래의 비전을 예감하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홀로그램의 영상이미지는 하나의 사진필름 위에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영상이미지들을 기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과 자연의 근원적 실체를 새롭게 탐구하는 계기를 주고 있다.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봄과 신경생리학자인 칼 프리브렘의 이론을 수용한 마이클 탈보트(Michael Talbot, 1953-1992)는 홀로그램의 영상 원리를 발전시켜 인간의 두뇌는 엔그램(engram)¹⁾ 방식이 아닌 홀로그램 방식으로 작용하며, 인간의 두뇌뿐만 아니라 우주도 홀로그램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클 탈보트는 『홀로그램 우주』(*Holographic Universe*)에서 “우리의 우주와 그 속의 모든 것들 —눈송이로부터 단풍나무나 별뿔별, 궤도를 도는 전자에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로부터는 너무나 아득한,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실재의 차원으로부터 투사되는 유령 같은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²⁾라고 말하며, 인간의 정신과 물질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실체이자 홀로그램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다.

마이클 탈보트와 같이 인간과 우주와 실재가 홀로그램의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가는 이차크 벤토프(Itzhak Bentov, 1923-1979)이다. 이차크 벤토프는 『우주심과 정신물리학』(*Stalking the Wild Pendulum*)에서 인간과 우주는 동일한 하나의 실체이며, 홀로그램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차크 벤토프의 이론은 마이클 탈보트의 이론과는 달리 인간과 우주와 근원

-
- 1) 엔그램은 기억이 두뇌의 특정한 장소에 저장된다는 이론이다. 그 이론은 예를 들어 할머니를 본 기억, 열여섯 살 때 정원에서 맡았던 꽃향기의 기억 등과 같은 낱낱의 기억들이 저마다 뇌 속 특정한 곳의 세포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 2) Michael Talbot(마이클 탈보트), *The Holographic Universe: The Revolutionary Theory of Reality*, Harper Perennial, 1992, p. 11, 이균형 역, 『홀로그램 우주』, 정신세계사, 2005, 29쪽.

적인 실재를 해석하는 방식이 서로 대립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이차크 벤토프는 마이클 탈보트와 같이 인간과 우주와 실재가 홀로그램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마이클 탈보트의 이론과 같이 인간과 우주와 실재를 홀로그램 원리에서 말하는 간섭무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홀로그램의 원리로 설명하는 이차크 벤토프의 정신과학은 인간과 우주와 실재를 동일한 하나의 실체라고 말하며, “홀로그래피 매체는 빛이 자발적으로 창조하는 힘에 기초한다.”³⁾라고 주장하는 시각예술 분야의 이론가들이 인간과 빛을 서로 다른 성질로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과 빛을 동일한 성질로서 인식하고 있다. 달리 말해 빛은 이차크 벤토프의 정신과학의 이론에 의하면 실재에서 진동을 통해 생성되어 나온 것이며, 인간과 우주는 빛의 일부라는 인식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

인간과 우주는 진동을 통해 실재에서 생성되어 나온 빛이라는 이차크 벤토프의 정신과학은 블라바츠키(H. P. Blavatsky, 1831-1891)와 현대 신지학의 이론을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마이클 탈보트의 실재의 개념과는 대립되는 이차크 벤토프의 정신과학에서 말하는 실재의 개념을 블라바츠키와 그를 계승하고 있는 이론가들의 실재의 개념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II. 사유와 실재⁴⁾와 진동

인간과 우주는 블라바츠키와 모던 신지학의 이론을 수용하고 있는 이차크 벤토프의 정신과학에 의하면 실재에서 진동을 통해 생성되어 나온 실체이다. 실

3) Frank Popper(프랑크 포페르), *Art of the Electronic Age*, 박숙경 역, 『전자시대의 예술』, 예경, 1992, 52쪽.

4) 실재(substance)는 변화무쌍한 물질의 근저(根底)에 놓여있는 지속적이고 불변적인 것을 말한다. 실재는 철학에서는 실체로 통용되며, 사물들을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 규정할 때 사용하는 실체(entity)의 개념과는 다르다. 다시 말해 실재(substance)는 ‘실재하는 모든 것, 즉 사물의 실존에 속하는 것의 기저(基底)’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재는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사유를 내재하고 있는 진동으로써 인간과 우주를 생성시키는 모태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실재는 정신과 물질로 이원화된 실체가 아니라 사유이며, 진동을 통해 정신과 물질이 하나인 실체에서 인간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것들을 생성시키는 것이다. 이 장은 블라바츠키의 신지학의 이론에서 이차크 벤토프의 정신과학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재와 진동과 사유와 진동수와의 상호 관계를 기술하고자 한다.

1. 실재와 진동

블라바츠키와 그를 계승한 신지학자들이 주장하는 실재(substance)의 정의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실체’이자 동시에 ‘운동’ 또는 ‘진동’의 개념을 내재하고 있다. 즉 실재는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영원하며 불변하지만 변화 없는 정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과 변화하는 운동 속에 있는 것이다. 실재는 이들 이론가들에 의하면 정신과 물질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실체(entity)이자 끊임없이 진동하는 하나의 실체인 것이다. 블라바츠키가 ‘실재’와 ‘진동’의 개념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저술은 그의 대표적인 저술인 『비경』(*The Secret Doctrine*)에서 이다. 그는 『비경』에서 실재는 불변하며 정지해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으며, 진동하는 실체라고 정의한다. 인간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것들은 그에 의하면 실재의 진동으로부터 생성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우주가 실재로부터 진동을 통해 생성되어 나오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곱 번째 영원의 마지막 **진동**이 무한을 뒤흔든다. 어머니(우주의 모체)는 부풀어 올라 연꽃의 봉오리처럼 안에서 밖으로 팽창한다. ‘**진동**’은 노도처럼 휘몰아쳐 가면서, 그 날쌌던 날개로 (동시에) 전 우주와 암흑 안에 있는 씨눈(생명의 모태)에 닿았다. 암흑은 잠자는 생명의 물위에서 숨을 쉬고 있다.⁵⁾

암흑은 블라바츠키의 『비경』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실재를 의미하며, 씨눈은 진동을 통해 실재에서 생성되어 나온 우주의 만물의 모태를 의미한다. 즉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은 그의 이론에 의하면 암흑과도 같은 실재에서 진동을 통해 차별화된 실체를 의미한다. 블라바츠키의 실재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동하는 실체이며, 우주의 모든 것들은 실재에서 진동을 통해 생성되어 나온 것이라는 개념은 클라우드 폴 라이트(Claude Falls Wright)와 윌리엄 콰젠티지(William Quan Judge, 1851-1896)의 『모던 신지학의 원리들의 개요』(*Outline of the Principles of Modern Theosophy*)에서 “(블라바츠키의) 실재는 진동을 내재하고 있다.”⁶⁾라는 함축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자연의 모든 사물들은 진동을 통해 실재에서 생성되어 나온 실체라는 개념은 블라바츠키의 이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애니 베산트의 대표적인 저술인 『고대의 지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애니 베산트는 『고대의 지혜』에서 “모든 사물들은 율동적인 진동들로 살아간다. 밀도가 있는 물질의 대부분의 진동들은 화학적인 활동, 열, 그리고 물리적인 에너지의 다른 형태들로 변한다.”⁷⁾라고 기술하고 있듯이 물리적인 진동의 개념을 화학적인 에너지의 형태로 확장시키며, 분자는 물론 세포들의 구성되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진동을 통해 실재를 통해 생성되어 나온 실체라고 말하고 있다.

실재가 지닌 진동의 개념을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물리학의 개념에까지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는 저술은 이차크 벤토프의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이다. 이차크 벤토프는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에서 “실체는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불변의 기준선 또는 배경이 되는 성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성분의 역동적이고 진동하는 속성이다. 양자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순수의식이라는, 진동하면서 변화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⁸⁾라고 설명하고 있

5) Helena Petrovna Blavatsky, *The Secret Doctrine I, II*, The Theosophical Publishing House, 1993, pp. 62-63.

6) Claude Falls Wright and W. Q. Judge, *Outline of the Principles of Modern Theosophy*, Nabu Press, 2012, pp. 33-34.

7) Annie Besant, *The Ancient Wisdom*, Elibron Classics, 2006, pp. 65-68.

는 것처럼 근대와 모던 과학에서 말하는 원자와 분자는 물론 현대물리학에서 주장하는 양자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실재에서 생성되어 나온 실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진동은 이들의 신지학의 이론에 의하면 실재에 내재해 있는 속성이며, 정신과 물질이 하나인 실재를 광대한 우주에서 극미한 양자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분화시켜 자연의 모든 것을 생성시키는 근원인 것이다.

2. 사유와 진동수

사유와 진동은 블라바츠키와 그를 계승한 현대 신지학자들에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실체이다. 실재 역시 사유를 내재하고 있으나 사유는 블라바츠키의 『비경』에서 “절대의식은 인식하는 자, 인식되어지는 것들, 인식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셋이 전부 절대의식 속에서는 하나이다.”⁹⁾라고 말하고 있듯이 절대의식인 실재에서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사유와 진동은 블라바츠키에 의하면 절대의식인 실재에서는 잠재된 상태로 내재해 있으나 우주가 현현할 때 실재를 차별화시키는 힘은 수, 즉 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블라바츠키는 『블라바츠키의 비의 논문』(*The Esoteric Papers of Madame Blavatsky*)의 저술에서 “수는 형태의 기초 원리가 되며, 수는 음을 인도한다. 수는 현현된 우주의 근원을 이룬다. 숫자들과 조화로운 비례들이 동종적인 실재를 차별화된 요소들로 처음으로 차별화시킨다.”¹⁰⁾고 말하고 있듯이 수는 블라바츠키에게 진동에 내재해 있는 사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타일러(I. E. Taylor)는 블라바츠키와 그를 계승한 신지학자들이 정의하는 사유에 대해 『신지학의 논고』(*Essays on the Theosophy*)의 저술에서 “사유는 진동이며, 생명의 창조적인 힘이다.”¹¹⁾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유는 이들의 이론에서 현현된 우

8) Itzhak Bentov(이차크 벤토프), *Stalking the Wild Pendulum*, New York: Bentam Books, 이균형 역, 『우주심과 정신물리학』, 정신세계사, 1997, 148쪽.

9) 위의 책, 56쪽.

10) H. P. Blavatsky and Daniel H. Caldwell, *The Esoteric Papers of Madame Blavatsky*, Kessinger Publishing, LLC, 2010, p. 345.

주에서 실재라는 절대 공간을 상대적으로 분화시키며, 생명을 생성시키는 실체인 것이다. 다시 말해 사유는 이들의 이론에서 진동을 내재하고 있기에 사유가 정신적인 실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형태를 띠는 실체로서 작용하게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블라봐츠키의 이론을 계승하여 인간의 사유와 진동의 형태와의 상호 작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이론가는 애니 베산트이다. 애니 베산트는 『상념』(*Thought-Forms*)의 저술에서 “각각의 상념은 자기 주위로 자신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물질을 끌어당기고, 그 물질을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진동 상태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상념의 특질(특성)은 자신의 색채를 결정하게 된다.”¹²⁾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지니고 있는 사유의 성질은 물질적인 질과 형태를 결정짓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파브리(P. Pavri)는 애니 베산트의 그러한 생각에 대해 『신지학의 문답』(*Theosophy Explained in Questions and Answers*)에서 “사유는 정신계의 물질의 운동 방식에 반응하는 의식의 변화이다.”¹³⁾고 설명하고 있다.

이차크 벤토프는 블라봐츠키와 모던 신지학이 주장하는 사유의 성질과 진동과의 관계를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에서 “의식의 질은 ‘진동수 반응’(주파수 응답, frequency response)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의식의 질이 높을수록 그 조직체의 진동수 반응 범위는 높아진다.”¹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 물리학의 관점으로 확장하여 사유의 성질을 진동수와의 관계로 보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유는 블라봐츠키와 그를 계승한 신지학의 이론에서 정신적인 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물질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반응하는 의식의 성질을 의미하며, 의식의 성질은 진동수를 통해 그 물질적인 형태와 성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11) I. E. Taylor, *Essays On Theosophy*, Kessinger Publishing, LLC, 2010, pp. 15-16.

12) Annie Besant and Charles W. Leadbeater, *Thought-Forms*, Dodo Press, 2009, p.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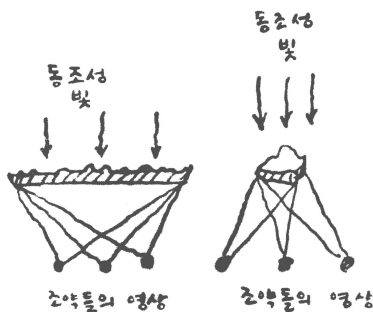
13) P. Pavri, *Theosophy Explained in Questions and Answers*, Kessinger Publishing, 2005, p. 170.

14) 이차크 벤토프, 『우주심과 정신물리학』, 정신세계사, 1997, 135쪽.

III. 홀로그램 원리와 빛과 물질원자

빛과 진동은 홀로그램 원리를 작용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빛은 양자물리학에 의하면 파장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블라바츠키와 그를 계승하고 있는 이론가들에 의하면 빛은 사유이며, 실재부터 생성되어 나온 물질적인 실체인 것이다. 인간의 신체가 빛의 근원적 실체를 볼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제한된 감각적 인식으로 인해서 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장은 홀로그램의 원리와 블라바츠키와 그를 지지하는 이론가들이 설명하는 빛과 물질원자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1. 홀로그램 원리



[그림 1]

홀로그래피는 1947년 데니스 가보르 (Dennis Gabor, 1900-1979)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실용화되는 방법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것은 1960년대 간섭성을 가진 레이저가 발견되고 나서 시작되었다.¹⁵⁾ 홀로그램의 놀라운 점은 3차원의 입체상을 공간에 구현하는 것 외에도 [그림 1]에서 보듯이 필름의 일부를 잘라 거기에 레이저 광

선을 비출 경우에도 동일한 입체 영상이미지가 구현되는 데에 있다.

홀로그램 사진술을 가능케 하는 것 중의 하나는 파동의 간섭현상이다. 간섭이란, 둘 이상의 파동(예컨대 물결)이 서로 교차할 때 생기는 간섭무늬이다. 예를 들어 돌을 연못에 던지면 밖으로 퍼져나가는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생긴다. 연못에 2개의 돌을 던지면 2개의 파문이 서로 교차하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

15) Gabor, Dennis, "A new microscopic principle", in: *Nature*, vol. 161, 1948, pp. 777-778.

다. 그러한 파문의 충돌에서 생기는 골과 마루의 복잡한 배열을 간섭무늬라고 한다. 빛이나 전파를 포함하여 파동의 성질을 지닌 모든 현상이 간섭무늬를 만들 수 있으며, 레이저 광선은 고도로 순수하고 응집성이 있는 빛이므로 이것은 특히 간섭무늬를 만드는 데에 용이하다. 즉 홀로그램은 진행방향이 일정하고, 규칙적이며, 단일한 파장의 파동을 가진 빛은 ‘간섭성 빛’ 혹은 ‘동조성 빛’(coherent lights)이 있어야 하며, 레이저 광선은 완벽한 연못과 돌과 같이 작용하는 것이다.¹⁶⁾

홀로그램은 기록 방식, 재생 방식 그리고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기록 방식으로 분류할 경우 홀로그램은 진폭형 홀로그램과 위상형 홀로그램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재생 방식에 따라 반사형 홀로그램(Reflection Holograms)과 투과형 홀로그램(Transmission Holograms)으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투과형 무지개 홀로그램, 반사형 칼라 홀로그램 그리고 스테레오 홀로그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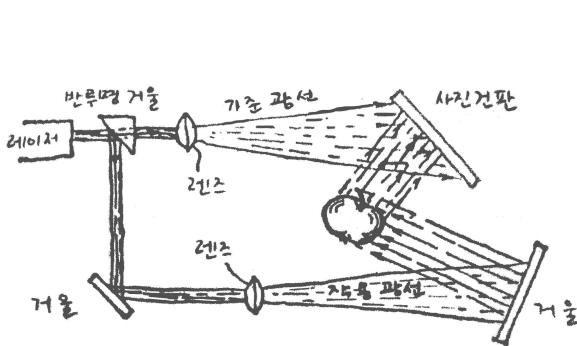
투과형 홀로그램은 물체파와 기준파를 같은 방향에서 사진필름에 입사시켜 노출시켜 제작한 것으로서 홀로그램 재생시에 홀로그램의 뒤에서 빛을 비추어 홀로그램을 투과하여 나온 상을 홀로그램의 앞에서 관찰하도록 제작한 것이다. 투과형 홀로그램의 간섭무늬는 사진필름의 젤라틴 면에 수직으로 형성된다. 반면에 반사형 홀로그램은 재생시에 홀로그램의 앞에서 빛을 비추어 홀로그램을 반사하여 나온 상을 홀로그램의 앞에서 관찰하도록 제작된 것이다. 반사형 홀로그램은 제작 시에 물체파(작용광선)와 기준파(기준광선)의 방향을 감광재료의 반대 방향에서 서로 입사하여 기록한다. 간섭무늬는 사진필름의 젤라틴 면과 평행하게 형성되는데 젤라틴 면에 평행한 간섭무늬의 면은 각각 파장을 선택하는 작용을 하게 되어 칼라 홀로그램 제작 시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림 2]에 보이는 홀로그램은 반사형 홀로그램으로 레이저에서 나온 광선을 2개로 나눠 하나의 빛은 직접 스크린을 비추게 하고, 다른 하나의 빛은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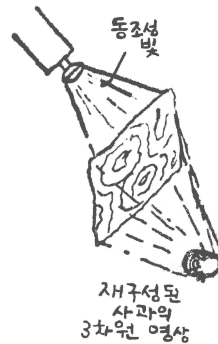
16) Michael Talbot, *op. cit.*, p. 14; 마이클 탈보트, 위의 책, 33쪽.

17) P. Hariharan, *Basics of Hol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참조.

가 보려고 하는 물체에 비추는 것이다. 위의 광선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사진필름에 기록되고, 아래의 광선은 사과를 만나 사과에서 반사된 광선을 사진 필름에 기록한다. 위의 광선은 기준광선(reference beam)이라고 하고, 물체를 비추는 빛을 작용광선(물체광, object beam)이라고 한다. 작용광선은 물체의 각 표면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므로 물체 표면에 따라 위상차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기준광선과 작용광선(물체광)이 만나 간섭을 일으키며 이때 간섭무늬가 기록된다. 이러한 간섭무늬가 기록된 필름을 홀로그램(hologram)이라고 한다.18)



[그림 2]



[그림 3]

기록된 홀로그램을 영상이미지로 재현하려면 기록할 때 [그림 3]과 같이 사용한 광선을 다시 스크린 건판에 쏘아야 한다. 재생 시 사용하는 광선은 기록 시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파동만이 3차원으로 재현되고, 파장과 위상이 다른 파들은 아무런 효과가 없이 저장된 홀로그램을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기록 시 사용된 기준광과 반드시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홀로그램 영상이미지는 ‘간섭성 빛’을 기준광선과 작용광선으로 나누어 간섭무늬를 만들고, 다시 동일한 간섭성 빛을 간섭무늬(홀로그램)에 투과시켜 재생하는 것이다.

18) 이차크 벤토프, 앞의 책, 54-61쪽.

2. 실재와 빛과 물질원자

빛은 블라바츠키와 현대 신지학의 이론에 의하면 실재에서 처음으로 분리되어 나오는 순간에 최초로 생성된 실체, 즉 사유(로고스, Logos)를 의미한다. 로고스는 블라바츠키의 『신지학의 열쇠』에서 “플라톤은 보편적인 무한한 에고로부터의 최초의 현현(또는 2차로 현현된 신)을 로고스라 칭하였으며, 현현된 신성의 원리인 인간은 많은 유신론자들이 믿고 있는 신인동형동성적(anthropomorphic)이며, 초우주적이고 개성적인 신이 아니라 보편적인 마음과 영혼과 하나이다.”¹⁹⁾라고 말하고 있듯이 실재에서 처음으로 분리된 물질적인 실체를 의미한다. 빛은 블라바츠키에 의하면 로고스이며, 그 로고스는 분화를 통해 더 작은 단위의 빛으로 분화된다. 그리고 그러한 반복적인 분화를 통해 인간과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이 생성되는 것이다. 블라바츠키는 『비경』에서 빛이 실재에서 생성되어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암흑은 유일한 참된 실재이고, 빛의 기초이며, 근원이다. 암흑 없이는 결코 빛은 나타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 빛은 물질이며, 암흑은 순수한 영인 것이다.²⁰⁾ 암흑은 광선(로고스)을 수용하고 배출하는 물이다. 그 암흑에서 나온 한줄기 광선(로고스)은 다른 일곱 개의 생식력을 갖춘 광선들 또는 힘들(로고스들 또는 건설자들)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²¹⁾”

빛은 블라바츠키에게 실재에서 생성된 물질적인 실체이며, 그 물질적인 실체인 빛은 일곱 개로 분화되어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들을 생성하는 것이다. 실재에서 분리된 빛은 지나라자다사(C. Jinarajadāsa, 1875-1953)가 『신지학의 제일 원리』에서 “빛은 진동이다. 진동수 여하에 따라 색(色)이 생겨난다.”²²⁾고 말하고

19) H. P. Blavatsky, *The Key to Theosophy*; Theosophical University Press, 2002, p. 110.

20) H. P. Blavatsky, *The Secret Doctrine I*, p. 70.

21) *ibid.*, p. 80.

22) C. Jinarajadāsa, *First Principles of Theosophy*; Vasanta Press, 1976, p. 116.

있는 것처럼 물질의 형태를 띠며, 그 빛은 다시 일곱 개의 하위 광선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그 빛은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로고스이며, 일곱 개의 하위 광선은 일곱 개의 행성로고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빛이 물질적인 형태를 띠는 것은 블라파츠키와 그를 계승한 이론가들에 의하면 실제에서 생성되어 나온 인간과 우주의 모든 것들이 아주 극미한 거품덩어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주의 모든 사물들을 구성하는 실체는 애니 베산트와 리드비터의 『오컬트 화학』과 지나라자다사의 『신지학의 제일원리』에 의하면 엄청난 압력을 지닌 에테르라는 근원물질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로고스의 성질을 내재시킨 거품들로 구성된 물질원자들로 이루어진 것이다.²³⁾ 그 물질원자들은 우주의 로고스의 신체들은 물론 태양계의 로고스의 신체를 구성하는 실체가 되는 것이다.

로고스(빛)에서 물질원자가 생성되어 나오는 과정을 크룩크의 화학 원소의 개념과 비교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저술은 애니 베산트와 리드비터가 공저한 『오컬트 화학』에서 이다. 물질원자는 애니 베산트와 리드비터의 『오컬트 화학』과 지나라자다사의 『신지학의 제일원리』에 의하면 실제에서 분리된 로고스에 의해 형성된 거품을 통해 우리 태양계의 일곱 개의 행성로고스의 일곱 개의 신체를 구성하며, 하나의 행성로고스의 일곱 개의 신체는 다음과 같이 아디계의 몸체는 일곱 개의 거품으로, 아누파타카계는 49의 거품으로, 아트마계는 49²의 거품으로, 붓디계는 49³의 거품으로, 멘탈계는 49⁴의 거품으로, 아스트랄계는 49⁵의 거품으로, 물질계의 몸체는 49⁶의 거품의 물질 원자²⁴⁾들로 구성된다.²⁵⁾

23) *ibid.*, p.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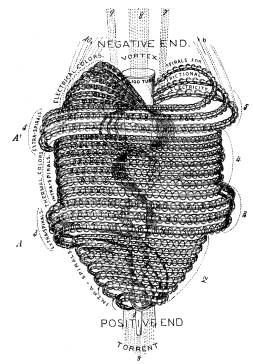
24) [그림 4]에 보이는 물질 원자는 각각의 7개의 존재계에서 음과 양의 한 쌍으로 되어 있다. 물질계의 물질원자는 양의 물질원자는 아스트랄계(4차원의 공간)에서 물질계로 에너지를 유입하는 역할을 하고, 음의 물질원자는 물질계에서 아스트랄계로 에너지가 흘러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Annie Besant and Charles W. Leadbeater, *Occult Chemistry-Clairvoyant Observations on the Chemical Elements*, The Theosophical Publishing House, 1919, 1967, p. 22.

25) Annie Besant and Charles W. Leadbeater, *Occult Chemistry-Clairvoyant Observations on the Chemical Elements*, pp. 21-25; C. Jinarajadâsa, *First Principles of Theosophy*, pp. 194-207.

물질원자의 형태는 애니 베산트와 리드비터는 『오컬트 화학』에 의하면 [그림4]의 도판과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그 물질원자가 작용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세 개의 굵은 나선 속에는 서로 다른 전기들의 흐름들이 흐른다. 일곱 개의 미세한 나선은 모든 종류의 에텔 파장 —소리, 빛, 열— 등에 반응하여 진동한다. 그것들은 일곱 개의 스펙트럼의 색채를 띠고, 자연의 7음계의 소리를 내며, 물질의 진동에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한다. 일곱 개의 나선은 번쩍거리고 노래하면서 여러 신체들을 맥동하게 하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빛을 내고 끊임없이 움직인다.”²⁶⁾

[그림 4]의 물질원자는 거품들을 구성하는 숫자만 다를 뿐 일곱 개의 행성로고스의 일곱 개의 신체를 구성하는 최소단위가 된다. 물질계의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원자는 49⁶의 거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상위의 물질원자는 일곱 개의 거품으로 물질원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현현된 우주에서 실재에서 분리된 로고스는 3중성²⁷⁾의 성질을 통해 인간과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을 구성하며, 3중성의 성질을 지닌 로고스는 우리 태양계의 일곱 개의 행성로고스의 일곱 개의 신체를 구성하는 물질원자에서는 [그림 4]에서 보듯이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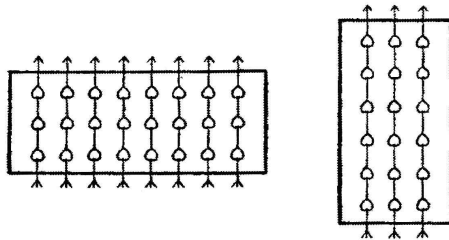
[그림 4]

26) Annie Besant and Charles W. Leadbeater, *Occult Chemistry—Clairvoyant Observations on the Chemical Elements*, p. 23.

27) 실재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현현된 우주에서 로고스는 블라봐츠키에 의하면 3중성의 성질을 통해 인간과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분화시키는 것이다. 3중성은 제1로고스, 제2로고스, 제3로고스의 형태로서 제1로고스는 대회전의 운동을 통해 현현된 우주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기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제2로고스는 나선 순환 운동을 통해 인력과 척력의 성질을 지니고 생명체를 모으다가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3의 로고스는 물체들이 회전 운동을 통해 나선형의 구체의 형태를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Alice A. Bailey, *A Treatise on Cosmic Fire*, lucis Press, 1979. pp. 38-41.

상위의 세 개의 나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세 개의 나선은 서로 성질이 다르며, 세 개의 성질이 다른 나선들은 다시 일곱 개의 하위 나선으로 분류되어 일곱 개의 음과 색채를 띠는 물질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물질원자는 회전운동을 하여 회전타원형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제3로고스의 성질과 나선 순환 운동을 유지하려는 제2의 로고스의 성질에 의해 전기에너지의 유입되면서, 위에서는 팽창하려는 성질에 의해 열에너지를 띠며, 아래에서는 수축하려는 원리를 통해 자기에너지를 띠게 된다. 물질원자의 가장 상위와 중간에 있는 세 개의 선은 제1, 2, 3로고스와 연결되어 있으며, 중간과 아래의 일곱 개의 선은 일곱 개의 행성로고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일곱 개의 선은 7음과 색채를 띠고 있으며, 피아노의 현이 각 건반에 맞는 음색으로 진동하는 것과 같이 [그림 5]에서 보이는 형태와 같이 다양한 모양을 이루는 것이다. 각각의 물질원자들은 [그림 5]의 모양을 통해 분자와 세포를 구성하여²⁸⁾ 일곱 개의 행성로고스의 일곱 개의 신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림 5]

인간은 태양로고스가 일곱 개의 행성로고스를 분화시켜 생성해낸 것과 같이 일곱 개의 행성로고스가 분화하여 생성된 광선으로서 일곱 개의 행성의 신체는

28) Annie Besant and Charles W. Leadbeater, *Occult Chemistry—Clairvoyant Observations on the Chemical Elements*, p. 24; C. Jinarajadâsa, *First Principles of Theosophy* 참고.

아디게, 아누파타카게, 아트마게, 붓디게, 멘탈게, 아스트랄게, 물질계의 몸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간의 일곱 개의 신체는 아트마게, 붓디게, 상위 멘탈게, 하위 멘탈게, 아스트랄게, 에테르의 신체, 물질계의 신체로 구성되어 있다.²⁹⁾

빛은 블라쵸츠키와 그를 계승하고 있는 이론가들에 의하면 실재에서 분화된 물질적인 신체를 지닌 의식들이다. 빛은 이차크 벤토프의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에서 “절대계에서 움직임이나 진동이 일어날 때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상대계 또는 물질 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³⁰⁾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형태를 지닌 사유이다. 빛이 무형의 형태로 인식되는 것은 지나라자다사가 『신지학의 제일원리』에서 “인간의 신경이 지금과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광파에는 감응할 수 없지만, 전자파에 잘 감응한다면, 태양이 비치고 있어도 어둠과 같이 느낄 것이며, 지구 빛이 아니라 벽에 붙은 전선이나 방안에 있는 물건에서 방전되는 정전기에 의해 밝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³¹⁾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육안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즉 빛이 물질 형태를 띠며, 자연의 모든 사물들을 구성하고 있지만, 인간의 육체는 만지면 무엇이나 금으로 변해버리는 전설의 미다스 왕의 손과 같이 일정한 진동수의 파장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빛이 무형의 형태를 띤 실체로 인식되는 것이다.

IV. 홀로그램의 원리와 실재

우주가 블라쵸츠키의 이론을 지지하는 이차크 벤토프에게 홀로그램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가 홀로그램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인간과 우주는 그의 이론에 의하면 실재라는 기준 광선에서 분화된 작용광선에 해당하며,

29) Annie Besant, *The Seven Principles of Man*, Elibron Classics, 2005 참고.

30) 이차크 벤토프, 앞의 책, 146쪽.

31) C. Jinarajadāsa, *First Principles of Theosophy*; pp. 120-121.

인간의 기억은 물질적인 두뇌에서 홀로그램과 같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멘탈체의 두뇌에서 작용하는 기능이다. 또한 인간과 우주가 진동을 통해 실재에서 생성되어 나오고, 실재로 환원하는 과정은 실재가 스스로를 체험하는 존재의 변형과정이라고 말한다. 이 장은 블라바츠키의 이론과 그를 계승하는 이론가들이 홀로그램 원리로 작용하는 실재와 간섭무늬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간섭무늬와 기록

실재와 우주의 모든 것들은 블라바츠키의 신지학의 이론을 지지하는 이차크 벤토프의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에 의하면 진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홀로그램의 원리와 같이 작용한다. 하지만 이차크 벤토프의 실재와 우주의 모든 것들은 마이클 탈보트의 『홀로그램 우주』에서 “우리 자신은 홀로그램 우주 전반에 걸쳐 있는 간섭무늬로 볼 수 있다.”³²⁾고 주장하고 있듯이 간섭무늬와 같이 작용하여 우주에 있는 단 하나의 원자도 우주의 모든 것을 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억도 마이클 탈보트가 봄과 프리브렘의 물리학과 신경생리학의 이론을 융합하여 해석하는 『홀로그램 우주』의 저술을 통해 “두뇌가 홀로그램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기억만이 아니다. 래실리가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은 뇌의 시각중추도 역시 외과적 절제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정도로 끈질기게 남아 있다.”³³⁾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두뇌에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은 이차크 벤토프의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에 의하면 “생각이나 욕망은 두뇌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스트랄체나 멘탈체·원인체 등에 의해 발생되고, 그것이 두뇌에 작용하여 작은 자극을 만들며, 두뇌가 이것을 증폭하여 생각이 만들어진다. 생각은 인식될 수 있는 생각의 경계선 아래에 존재한다.”³⁴⁾라

32) Michael Talbot, *op. cit.*, p. 57; 마이클 탈보트, 앞의 책, 87쪽.

33) *ibid.*, p. 18, p. 37; 위의 책, 87쪽.

34) 이차크 벤토프, 앞의 책, 184-185쪽.

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적 두뇌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트랄체와 멘탈체의 두뇌를 통해 작용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 인간의 기억이 상위 멘탈체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실재로부터 분화된 우주의 모든 것들은 블라바츠키가 『비경』에서 “삼중성의 로고스에 의해 탄생된 두 번째 상위의 존재계의 거주자인 리피카(Lipika)들의 감시를 받는다.”³⁵⁾고 말하고 있듯이 실재와 하나가 되기 직전의 두 번째 상위의 존재계를 통해 작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상위존재계는 리피카의 눈으로 애니 베산트의 『카르마』(*Karma*)에서 “아카식 이미지(Akashic Image)는 카르마 기록물들이며, 리피카의 책이다.”³⁶⁾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실재로부터 생성된 우주의 모든 행위들을 기록하는 영상이미지, 달리 말하면 카르마의 기록물인 것이다. 그 영상이미지는 이자크 벤토프가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에서 “우리가 여러 전생에 걸쳐 축적한 모든 지식, 모든 정보가 바로 이 영체에 담겨 있다. 또한 영체에는 우리의 개성·지성·직관이 담겨져 있다.”³⁷⁾고 말하는 간섭무늬를 의미하는 것이다.

간섭무늬는 이자크 벤토프가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에서 “다른 차원의 실체들과 얼마나 성공적으로 상호작용하는가는 의식의 매개체인 육체와 육체에 침투해 있는 여러 차원의 신체들의 발달 정도에 달려 있다.”³⁸⁾라고 기술하고 있듯이 진동수의 차이를 통해 분화된 각 존재계의 신체들(의식들)이 제대로 발달해야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존재계의 신체들은 블라바츠키와 현대신지학의 이론에 의하면 존재계의 두 번째 상위 존재인 모나드와 연결되어 있는 항구원자(permanent atom)³⁹⁾를 통해 작용하며, 노만 피어슨의 『공간, 시간과

35) H. P. Blavatsky, *The Secret Doctrine I*, p. 192.

36) Annie Besant, *Karma*, Theosophical Publishing Society, 1905, p. 27.

37) 이자크 벤토프, 앞의 책, 226쪽.

38) 위의 책, 184쪽.

39) 항구원자들은 두 번째 상위의 층에 있는 모나드와 그 아래의 각 존재계의 물질원자들과 결합된 원자들을 의미한다. 두 번째 상위의 층에 있는 모나드는 인간 및 자연의 모든 사물들의 근원적인 자아에 해당하며, 모나드는 광선을 발산하여 세 번째의 존재계층에 있는 물질원자와 결합하면 그 물질 원자는 항구원자가 된다. 이렇듯 모나드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의 물질원자들과 결합하여, 순서대로 아트마 항구원자, 붓디 항구원자, 멘탈 항구원자, 아스트랄 항구원자, 물질계의 항구원자를 만들어내고, 이 항

자아』(*Space, Time, and Self*)에 의하면 “항구원자는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유전자에 영향을 주어서 과거의 업적에 상응하는 체(Body)를 형성하는 유전자를 선택하는 일을 한다.”⁴⁰⁾라고 말하고 있듯이 각 존재계의 신체들을 재생시킬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신체를 형성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억을 작용하게 하는 실체는 블라바츠키와 현대 신지학의 이론에 의하면 물리적인 두뇌가 아니라 멘탈체의 두뇌를 통해 작용하는 기능이다. 실재에서 진동을 통해 분화된 우주의 모든 것들은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홀로그램의 원리에 의해 간섭무늬를 형성하지만, 동일한 수준으로 의식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간섭무늬를 재생시킬 수 없기에 그러한 상태를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2. 홀로그램의 원리: 실재의 존재 변형

실재는 블라바츠키의 신지학 이론을 지지하고 있는 이차크 벤토프의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에 의하면 홀로그램의 원리와 같이 작용한다. 하지만 실재는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마이클 탈보트가 『홀로그램 우주』에서 “우주가 홀로그램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⁴¹⁾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주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우주는 블라바츠키와 현대 신지학의 이론에 의하면 실재에서 분화되어 나온 로고스, 빛이다. 실재와 우주는 이차크 벤토프의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에 의하면 “홀로그램 식으로 얘기하자면, 관찰자는 작용광선이고, 절대 계는 기준광선, 즉 경험이 없는 순수한 광선이다.”⁴²⁾라고 말하는 구절에서 보듯이 실재는 기준광선이며, 우주는 작용광선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우주가 홀로그램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가 홀로그램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우주는 이차크 벤토프의 홀로그램 실재의 원리로 본다면 끊임없이 운동하고

구 원자들을 통해 각 존재계를 체험한다고 말한다.

40) Norman E. Pearson, *Space, Time, and Self*, The Theosophical Publishing House, 1964, p. 193.

41) Michael Talbot, *op. cit.*, p. 32; 마이클 탈보트, 앞의 책, 56쪽.

42) *ibid.*, p. 227.

변화해가는 실재의 거품과 같은 실체이기에 마야(maya), 즉 하나의 환영과 같다. 실재가 이자크 벤토프의 홀로그램의 원리로 우주를 분화시키는 것은 블라바츠키의 『비경』에 의하면 “의식적으로 있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있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⁴³⁾고 말한 것과 같이 실재가 물질적 형상으로 자신을 현현함으로써 스스로를 체험하는 과정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무의식적인 실재가 의식적인 실재가 되어가는 존재의 변형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존재의 변형 과정은 분화된 실재의 개체들이 분화된 존재계들을 두루 체험하고 스스로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블라바츠키의 『비경』에 의하면 “가장 하등한 의식으로부터 가장 고등한 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물 및 식물로부터 지고한 붓디(Buddhi, 직관계)에 이르기까지 현현기(Manvantara)⁴⁴⁾의 현상 세계에서 모든 원소의 형태를 빠짐없이 경험해야 한다.”⁴⁵⁾고 말한다. 우주는 블라바츠키의 『비경』을 주석하고 있는 푸루커(G. de Purucker)가 『은하계들과 태양계들: 그 발생, 구조와 운명』(*Galaxies and Solar Systems: Their Genesis, Structure, And Destiny*)에서 “우주의 생명의 힘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 우주의 실체가 스스로를 체화하기 때문에 우주는 존재가 된다. 인간의 근원적 자아(Ego)가 스스로를 체화하는 것과 같이 우주는 스스로를 체화한다. 죽음은 단지 하나의 변화이다. 생명은 단지 하나의 체험이다.”⁴⁶⁾고 말하는 것과 같이 실재가 스스로를 체험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것은 지나라자다사의 『카르마 없이 있음』(*Karma-less-ness*)에 의하면 “인간이 우주의 잔인하고 물질적인 실체들을 관찰할 때 그것을 비유기적이라고 칭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주의 끝이 아니다. 자연은 신비스러운 과정을 통해 비유기적 우주에서 유기적 우주로 지나가고 변형된다.

43) H. P. Blavatsky, *The Secret Doctrine I*, p. 53.

44) 만반타라(Manvantara)는 산스크리트어 합성어로서 두개의 마누(manu) 사이란 뜻이고 마누는 현현의 시초 처음으로 나타난 집단적 실체를 의미한다. 만반타라는 우주만반타라, 태양계의 만반타라, 지구의 만반타라, 인간의 만반타라가 있으며, 행성의 만반타라의 기간은 43억 2천만년에 해당한다. G. de Purucker, *Occult Glossary*, Kessinger Publishing, LLC, 2003, pp. 107-108.

45) *ibid.*, p. 17.

46) G. de Purucker, *Galaxies and Solar Systems: Their Genesis, Structure and Destiny*, Esoteric Teachings Vol. IV, Point Loma Pubns, 1987, p. 3.

그리고 그때 식물이 나타나고, 식물에서 다시 동물로, 동물은 인간이 된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변형적인 작업을 통해 자연은 스스로 의식으로 가득한, 이념으로 가득한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⁴⁷⁾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식의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블라바츠키와 현대 신지학의 이론에 의하면 홀로그램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은 우주가 아니라 실재이며, 실재는 홀로그램의 원리와 같이 작용하여 스스로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존재가 의식 존재로의 탈바꿈, 존재변형의 과정을 의미한다.

3. 홀로그램과 예술

실재는 이자크 벤토프가 『우주심과 정신물리학』에서 “절대계에서 움직임이나 진동이 일어날 때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상대계 또는 물질 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⁴⁸⁾라고 말하는 것처럼 홀로그램의 실체들과 분리된 것은 아니다. 우주는 실재의 운동을 통해 생겨난 홀로그램적인 실체이기에 홀로그램은 실재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홀로그램은 현대 신지학의 이론가들에게는 프랑크 포페르가 “홀로그래피는 산물이나 도구 이상인 빛이라는 매체의 자율적 구조에 의해 결정된 특수한 효과를 나타낸다. 제크는 홀로그래피 공간은 실재를 모방할 수 없으며, 홀로그래피 공간이 미학적 효과와 그것의 구체적인 존재가 오로지 빛의 자발적인 창조적 에너지로부터 나온다.”⁴⁹⁾고 주장하는 것처럼 실재를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재의 일부가 변형된 실체인 것이다. 또한 홀로그램을 구성하는 빛은 제크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정신과 무관한 자발적인 창조적 에너지를 지닌 추상적인 오브제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동일한 실재가 변형된 실체이다.

47) C. Jinarjadāsa, *Karma-less-ness*, Kessinger Publishing, LCC, 2006, pp. 52-53.

48) 이자크 벤토프, 앞의 책, 146쪽.

49) 프랑크 포페르, 앞의 책, 54쪽.

빛은 현대 신지학의 이론가들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과 분리된 것이 아니기에 홀로그램 예술 이론가들이 정의하는 홀로그램의 미적인 의미와 서로 상반되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홀로그램의 미적인 내용은 홀로그램 예술 이론가들에게 “오브제 빔과 오브제 주변의 빔 사이에서 겨우 관찰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⁵⁰⁾이지만, 그것은 현대 신지학의 이론가들에게 오브제 빔이 일정한 진동수를 지닌 색채이자 의식을 지닌 물질적인 대상이기에 오브제 빔의 색채를 통해 미적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빛이 현대 신지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진동이며, 진동수의 차이에 따라 색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색채들과 음이 모두 정신적인 숫자들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정신과 색채는 블라바츠키에 의하면 모두 숫자들에 기초해 있으며, 인간의 감정과 생각은 그 자신만의 고유한 색채와 음을 지니고 있기에 홀로그램 예술은 홀로그램 예술 이론가들이 말하는 오브제 빔과 오브제 주변의 빔 사이에서 관찰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브제 빔들의 색채들과 음들, 그리고 오브제 주변의 빔 사이에서 드러나는 색채들과 음들의 차이들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애니 베산트와 리드비터의 『상념』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신의 주관적인 심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음과 색채의 형태를 띤 물질적인 대상을 띠기 때문이다.

홀로그램의 예술은 현대 신지학의 이론가들에 의하면 오브제 빔과 오브제 빔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은 인간의 정신과 분리되지 않은 물질적인 실체이며 오브제 빔과 오브제 빔 사이의 차이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들의 차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

50) 위의 책, 55쪽.

V. 결론

인간과 우주가 마이클 탈보트가 말하는 것처럼 홀로그램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차크 벤토프의 정신과학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블라바츠키와 모던 신지학의 이론에 의하면 실재가 홀로그램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실재는 이들 이론에 의하면 진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홀로그램의 원리로 작용하며, 인간과 우주는 실재로부터 생성되어 나오는 것이다. 즉 인간과 우주는 진동을 통해 생성되어 나온 빛, 즉 로고스(Logos, 사유)이며, 실재로부터 ‘의식을 지닌 진동(3중성의 성질)’으로 인해 생성되어 나온 실체이다.

정신과 물질은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재이며, 실재는 진동수를 토대로 하여 인간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생성시키는 모태인 것이다. 인간의 감성과 사유는 인간의 7중의 구조(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하위 멘탈체, 상위 멘탈체, 붓디체, 아트마체)중에서 아스트랄체와 멘탈체를 통해 작용하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은 블라바츠키와 모던 신지학의 이론을 계승하고 있는 이차크 벤토프에 의하면 마이클 탈보트가 주장한 것과 같이 물질적인 두뇌에서 홀로그램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멘탈체의 작용을 통해 기능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이차크 벤토프에 의하면 물리적인 두뇌의 간섭무늬를 통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라는 기준 광선이 변형된 작용광선(멘탈체)을 통해 기능하는 것이다.

인간과 우주는 이차크 벤토프에 의하면 마이클 탈보트가 주장하는 홀로그램이 아니라 홀로그램의 원리를 통해 작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재는 이차크 벤토프에 의하면 기준광선에 해당하며, 인간과 우주는 작용광선에 해당하는 것이다. 작용광선은 그에 의하면 기준 광선과 하나가 될 때 까지 우주 균형의 원리인 카르마의 원리에 따라 반복적인 순환(운회)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과 우주는 블라바츠키와 모던 신지학을 수용하고 있는 이차크 벤토프에 의하면 실재가 지닌 3중성의 속성을 통해 실재로부터 분화되어 나온 작용광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간과 우주는 그에 의하면 실재라는 기준광선이 작용광선으로 분화

하여 체험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는 과정이며, 그것은 블라바츠키와 그를 계승한 이론가들의 말을 빌려 설명하자면 실재의 존재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홀로그램의 예술은 현대 신지학의 이론가들에 의하면 홀로그램 예술 이론가들이 말하는 빛이 인간의 정신과 분리된 자발적인 창조적인 에너지를 띤 추상적인 대상도 아니며, 오브제 빔과 오브제 빔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정신을 드러내는 데에 있다.

* 논문투고일: 2013년 4월 22일 / 심사기간: 2013년 5월 7일-5월 17일 / 최종게재확정일: 2013년 5월 18일.

참고문헌

- Bailey, Alice A., *A Teatise on Cosmic Fire*, lucis Press, 1979.
- Bentov, Itzhak, *Stalking the Wild Pendulum*, New York: Bentam Books, 이균형 역, 『우주심과 정신물리학』, 정신세계사, 1997.
- Besant, Annie, *The Ancient Wisdom*, Elibron Classics, 2006.
- _____, *Emotion, Intellect and Spirituality*, Theosophical Publishing House, 1914.
- _____, *Karma*, Theosophical Publishing Society, 1905.
- _____, *The Seven Principles of Man*, Elibron Classics, 2005.
- Besant, Annie and Leadbeater, Charles W., *Thought-Forms*, Dodo Press, 2009.
- _____, *Occult Chemistry-Clairvoyant Observations on the Chemical Elements*, The Theosophical Publishing House, 1919, 1967.
- Blavatsky, Helena Petrovna, *The Secret Doctrine I, II*, The Theosophical Publishing House, 1993.
- _____, *The Key to Theosophy*, Theosophical University Press, 2002.
- Blavatsky, Helena Petrovna and Caldwell, Daniel H., *The Esoteric Papers of Madame Blavatsky*, Kessinger Publishing, LLC, 2010.
- De Purucker, G., *Occult Glossary*, Kessinger Publishing, LLC, 2003.
- _____, *Galaxies and Solar Systems: Their Genesis, Structure and Destiny(Esoteric Teachings Vol IV)*, Point Loma Pubns, 1987.
- Dean Sloan, Q., re: “Nature’s Mind: The Quantum Hologram”, in: *Theosophical Metaphysicist* 10, November, 2002.
- Gabor, Dennis, “A new microscopic principle”, in: *Nature*, 1948, p. 16.
- Goleman, Daniel, “Holographic Memory: Karl Pribram Interviewed by Daniel Goleman”, in: *Psychology Today* 12, no. 9, February 1979.
- Hariharan, P., *Basics of Hol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Jinarajadâsa, C., *First Principles of Theosophy*, Vasanta Press, 1976.
- , *Karma-less-ness*, Kessinger Publishing, LCC, 2006.
- Mitchell, Edgar, Sc.D, “Nature’s Mind: The quantum hologram”, Institute of Noetic Science, 1999.
- Pavri, P., *Theosophy Explained in Questions and Answers*, Kessinger Publishing, 2005.
- Pearson, Norman E., *Space, Time, and Self*, The Theosophical Publishing House, 1964.
- Popper, Frank, *Art of the Electronic Age*, 박숙경 역, 『전자시대의 예술』, 예경, 1992.
- Talbot, Michael, *The Holographic Universe: The Revolutionary Theory of Reality*, Harper Perennial, 1992, 이균형 역, 『홀로그램 우주』, 정신세계사, 2005.
- Taylor, I. E., *Essays On Theosophy*, Kessinger Publishing, LLC, 2010.
- Wright, Claude Falls and Judge, William Quan, *Outline of the Principles of Modern Theosophy*, Nabu Press, 2012.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이차크 벤토프의 정신과학에서 말하는 인간과 우주와 실재를 블라봐츠키와 그를 계승하고 있는 이론과의 연계를 통해 설명하고, 마이클 탈보트의 실재의 개념과는 대립되는 이차크 벤토프의 실재의 개념을 홀로그램의 원리를 통해 해명하는 데에 있다. 또한 홀로그램 예술을 홀로그램 예술 이론가들이 말하는 홀로그램의 예술의 개념과 현대 신지학의 이론에서 정의하는 홀로그램의 예술의 개념과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데에 있다.

인간과 우주는 이차크 벤토프의 정신과학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블라봐츠키와 모던 신지학의 이론에 의하면 실재로부터 ‘의식을 지닌 진동(3중성의 성질)’을 통해 생성되어 나온 실체이다. 정신과 물질은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이며, 실재는 진동수를 토대로 하여 인간과 우주의 모든 것들을 생성시키는 모태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과 우주는 진동을 통해 실재에서 분화되어 나온 실체들이다.

인간의 의식은 우주의 의식과 마찬가지로 7중의 구조를 지닌 실체이며, 인간의 감성과 사유는 인간의 7중의 구조(물질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하위 멘탈체, 상위 멘탈체, 붓디체, 아트마체)중에서 아스트랄체와 멘탈체를 통해 작용하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은 블라봐츠키와 모던 신지학의 이론을 계승하고 있는 이차크 벤토프에 의하면 마이클 탈보트가 주장한 것과 같이 물질적인 두뇌에서 홀로그램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멘탈체의 작용을 통해 기능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이차크 벤토프에 의하면 물리적인 두뇌의 간섭무늬를 통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라는 기준 광선이 변형된 작용광선(멘탈체)을 통해 기능하는 것이다.

인간과 우주는 이차크 벤토프에 의하면 마이클 탈보트가 주장하는 홀로그램이 아니라 홀로그램의 원리를 통해 작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재는 이차크 벤토프에 의하면 기준광선에 해당하며, 인간과 우주는 작용광선에 해당하는 것이다. 작용광선은 그에 의하면 기준 광선과 하나가 될 때 까지 우주 균형의 원리인

카르마의 원리에 따라 반복적인 순환(윤회)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간과 우주는 블라바츠키와 모던 신지학을 수용하고 있는 이차크 벤토프에 의하면 실재가 지닌 3중성의 속성을 통해 실재로부터 분화되어 나온 작용광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간과 우주는 그에 의하면 실재라는 기준광선이 작용광선으로 분화하여 체험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는 과정이며, 그것은 블라바츠키와 그를 계승한 이론가들의 말을 빌려 설명하자면 실재의 존재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홀로그램의 예술은 현대 신지학의 이론가들에 의하면 홀로그램 예술 이론가들이 말하는 빛이 인간의 정신과 분리된 자발적인 창조적인 에너지를 띤 추상적인 대상도 아니며, 오브제 빔과 오브제 빔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정신을 드러내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들 이론에 의하면 빛이 일곱 가지 색채를 내재하고 감정과 생각들은 진동을 통해 차별화되는 색채들과 동일한 실체이기 때문이다.

핵심어

실재, 홀로그램, 진동, 기준광선, 작용광선

ABSTRACT

A Study on Hologram and Reality

- Focus on H. P. Blavatsky' and Contemporary theosophical theory

Kwan-Yong Cho*

This dissertation aims to expound man, the universe, and substance, the concepts Itzhak Bentov(1923-1979) describes in his mental science in connection with H. P. Blavatsky's theories and theories succeeding to Blavatsky's, and elucidate Bentov's notion of substance opposite to that of Michael Talbot(1953-1992). This is also intended to explain briefly the difference of the concepts of holographic art clarified by holographic art theoreticians and the notions defined in modern theosophy.

According to the theories of Blavatsky and modern theosophy that are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Bentov's mental science, man and the universe are the substances engendered through "vibrations with consciousness"(trinity character). According to their theories, spirit and matter are one-and-the same substance, and this substance is the matrix of all humans and things in the universe through vibrations. That is to say, man and the universe are the real derived from substances through vibrations.

* Lecturer, Sungshin Women's University

Human consciousness is the substance in the seven-fold structure the planets in the seven-fold structure divide through trinity. Human thought and sensibility work through the astral body and mental body in the humanity's seven-fold structure(physical body, ether body, astral body, lower mental body, higher mental body, buddhic body, atma body).According to Itzhak Bentov succeeding to the theories of Blavatsky and modern theosophy, the human memory does not work on the holographic principle in a physical brain, as Michael Talbot claimed but functions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mental body. For Bentov, human consciousness does not work through a physical brain(object beam) but functions through mental brain(object beam) modified from the reference beam.

According to Itzhak Bentov, man and the universe operate, anchored to the principle of hologram, not hologram itself as Michael Talbot claims. That is, for Bentov, substance is the reference beam while man and the universe are the object beams. Bentov explains the object beam has to be in a repetitive cycle(the cycle of transmigration) on the principle of karma, the principle of cosmic balance when this becomes one with the reference beam. In other words, for Bentov who embrace Blavatsky's theories and modern theosophy, man and the universe pertain to the object beam divided from substance through an attribute of trinity of the substance. Bentov also explains that man and the universe are a process of cognizing themselves through experience when the reference beam of substance is divided into the object beam.

According to modern theosophy theorists, holographic art is neither the abstract objects with spontaneous creative energy in which light separates from human spirit nor any revelation of the gap between object beams. This

aims to reveal human emotion and spirit. That is why seven colors are innate in light, and feelings and thoughts are identical with the colors differentiated through vibrations according to their theories.

Key Words

substance, hologram, vibration, reference beam, object beam